



A vibrant, abstract collage of various shapes and colors, including circles, squares, and triangles, featuring icons like a sun, clouds, a person, a globe, and musical notes, suggesting a theme of diversity and community.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세계인의 날이란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9조

What is Together Day?

Together Day is a national commemorative day designated to create a society where foreign nationals and Koreans respect one another and live in harmony through diverse cultural exchanges.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9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이당사례집



CONTENTS

01	어릴 적 꿈을 한국에서 이루다	06
02	이민자 네트워크 봉사 활동은 내 미래의 밑거름	12
03	10년 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다	16
04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기업인	22
05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의 “아름다움 나누기”	26
06	"도전과 성장의 기록: 산업연수생에서 영주권자가 되기까지"	36
07	동반 비자(F-3)부터 유학 비자(D-2)까지	42
08	나의 두 번째 고향, 한국에서 피어난 꿈과 희망 - 미얀마에서 온 이주민의 이야기	46
09	대한민국에서 꿈을 꾸다.	50
10	이민자 네트워크 “우리 쌀 활용 제주 음식 만들기” 교육 일지	56
11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엄마	62
12	이민자들이 직접 빛은 만두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전달	66
13	내 꿈은 변호사입니다.	70
14	나의 한국에서의 삶의 경험	74
15	나는 상호문화 전도사	78

16	“우리나라 강산 곳곳에 강산의 나눔을 전하고 싶습니다”	84
17	직장 경험도 없던 네팔 사람의 성공적인 한국 생활 적응기	88
18	한국에서 다시 피어난 나의 인생	92
19	봉사를 통한 마음의 힐링	96
20	한국은 나의 꿈을 꽃 피어준 ‘또 하나의 고향’	100
21	내가 만난 결혼이민자-아름답고 강하게 “희망 인간, 유미 씨!”	104
22	따스하게 안아준 나라, 한국	108
23	한국에서 피어나는 꿈: 안눈 씨와 안나 씨의 이야기	112
24	한국과 태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자랑으로 ‘태국 전통 춤 모임’	116
25	무료 진료와 한국어 수업으로 함께하는 지구촌 문화 향기 풀풀~~	122
26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	128
27	중국에서 전주로, 그리고 새로운 여정	132
28	전주출입국 “다꿈학급 도서 지원”	136
29	나를 반하게 만든 한국, 사랑해요~!	140
30	한국은 저의 두번째 고향입니다.	144

01

어릴 적 꿈을 한국에서 이루다



이 름 모니카

국 적 볼리비아



어릴 적 꿈을 한국에서 이루다



✧ 우연한 만남이 한국어 공부를 넘어 운명의 상대에게 이끌다.

1980년대 중반에 볼리비아로 이민 온 한국 가족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초대를 받아 찾아간 집에서 신발을 벗고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색적이고 호감이 생겨 한국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공부를 독학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주현미 님의 '비내리는 영동교' 테이프를 늘어지도록 들으며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 1988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1994년 한국에 왔지만, 극심한 향수병에 걸려 얼마 못 버티고 다시 볼리비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굳은 마음을 먹고 1998년 5월 다시 입국한 한국은 제게 든든한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 외로움을 나눔으로 바꾸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나라이자,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를 맘껏 말하고 배울 수 있는 한국이 좋기도 했지만 제가 한국에 처음 온 당시에는 볼리비아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도 없어서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볼리비아에서 제가 한국 이민자분들을 도왔듯이 한국말을 못하는 다른 결혼이민자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먼저 제 한국어 실력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에 2008년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강사 교육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는 다국어 통번역지원 교육을 듣고 본격적으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을 지원하는 언어는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였기에 스페인어가 필요한 이민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중랑구 평생학습 작품전시회
자작시 출품

2015년 6월 남미 출신 외국인이 공장에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 물리치료와 산재 관련 사항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또, 가정폭력을 당한 온두라스 출신 여성이 쉼터 생활할 때 언어 지원 뿐 아니라 상담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 어릴 적 꿈을 이루다

사실, 제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루고자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그 꿈이 거의 이뤄진 것같아 떨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장벽은 너무 높아 좌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서울시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강사'가 되어 저는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에서 수 많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바라볼 때, 비록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는 아니지만 교육이 끝나고 아이들이 달려와 '사랑해요'라면서 안기거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귀여운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어릴 적 꿈을 이룬 듯 뿌듯하고 가슴 뭉클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중국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인 스페인어를 한국 학생들이 배워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높였으면 하는 마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부 동아리에서 스페인어 수업을 하는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외국어 교육은 문법 위주라 저는 제 방식으로 회화를 가르쳤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그때 제 학생들이 외교관 시험에 합격하거나 인터뷰에 취업하고 한국기업의 멕시코 지사등에서 근무하며 국위를 선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보람차고 기뻐했습니다.



문화 다양성 교육 강의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노력을 많이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려서부터 항상 남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셔서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고 항상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든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서울시 명예 시민증'으로, 그리고 이주민과 선주민의 거리를 줄이고 인식개선에 많은 일을 했다고 여러 표창장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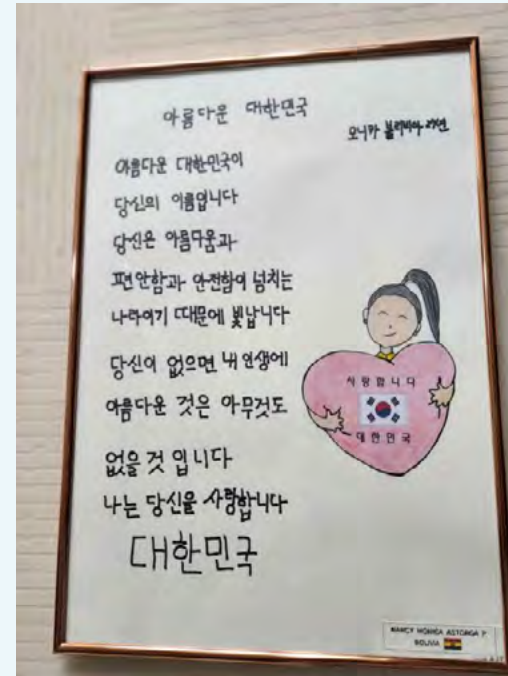
✧ 대한민국,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되다.

이 곳 아름다운 한국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지 27년이 흘렀습니다. 저에게 문을 열어주고 사회 봉사활동을 넘어 제 꿈까지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준 대한민국입니다. 이 곳에서 저는 많은 고귀한 마음을 가진 한국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마법처럼 저의 일상을 기쁨과 희망으로 채워준 분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부대끼고 생활하는 제 가족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볼리비아의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당당히 대한민국의 군복무를 마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한 몫을 하는 든든한 일꾼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랑스롭습니다.

끝으로 제가 대한민국에 대한 마음을 적었던 글로 끝맺음을 대신합니다.



문화 다양성 교육 강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자작시

아름다운 대한민국

모니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안전함이 넘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빛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에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02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이민자 네트워크 봉사 활동은 내 미래의 밑거름



이 름 이 전 기

국 적 중국



이민자 네트워크 봉사 활동은 내 미래의 밑거름



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 수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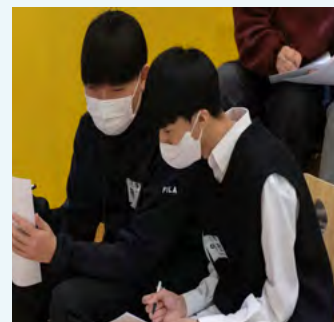
고등학생이었던 어느 날, 티브이 채널을 돌리다가 한 소녀가 모르는 언어로 노래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을 하는 송소희 양이 중국의 한 방송국에서 기획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민요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가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에 푹 빠져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후 중국 현지 대학교의 한국어학과에 입학하여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고 할 줄 아는 것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교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동기들보다 더 빨리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3학년이었던 2019년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국악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이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공연을 자주 보러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판소리 명창에게 남도민요와 판소리 몇 대목을 직접 배우기도 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매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예술 아카데미를 여는데, 저는 2022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6개월 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은 대충 흥내만 내는 정도이지만 그때의 경험은 제게 정말 뜻깊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미약하나마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하나, 둘 하다 보니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서울동작경찰서 SNS 유학생 범죄예방 홍보단원으로 활동했었고, 2023년 코오롱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8기에서 대학생 멘토로 선발돼



이주 배경 청소년
멘토활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봉사

이주 배경 청소년 학습지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가장 오래 했고 또 가장 보람을 느끼는 활동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하는 민원실 자원봉사입니다. 2021년 2월 말 코로나19가 한참 심각할 때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3일간 중국어 통역 봉사를 했었습니다. 같이 봉사를 했던 중국 출신 결혼 이민자 분의 제안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안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비자 기간 연장을 위해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으로 방문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긴장 반 설레임 반으로 서울청을 방문해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이라 잘 몰라서 당황한 일도 있었지만 함께 봉사하셨던 대만 출신 자원봉사자 ‘선배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봉사 업무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청 민원실 안내 창구에는 일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만 간단한 상담도 해야 하고 대기 번호표도 뽑아줘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을 때는 일일이 다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민원 안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방문 예약 여부를 묻고, 관할에 맞게 방문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말이 서툴러 직원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민원인을 위해 통역을 해주고 출입국 업무에 익숙하지 않는 민원인들에게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등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민원인들이 짜증내거나, 무조건 빨리 빨리 해달라며 요구할 때는 많이 곤혹스럽기도 하고 잠시 실 틈도 없이 바쁠 땐 힘들기도 하지만 수 많은 ‘감사합니다’, ‘세세’, ‘Have a nice day’ 등의 한 마디들이 계속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험 등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서울청에서 매주 빠짐없이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일이지만 언젠가부터 나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미담사례집



청소년 멘티가 그려준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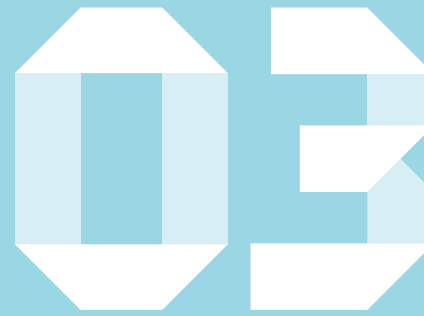
그 과정을 통해 한국어 실력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자부심과 뿌듯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도움이 고맙다고 커피를 사다주는 민원인도 있었고 “중국어 잘 한다”고 칭찬하면서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국살이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6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한중 통번역사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번역 공부를 하겠다고 한국어 번역 석사과정까지 마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구만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번역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바꿔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통번역사,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며 깊이 있는 해당 분야의 지식이 뒷받침되었을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한 용어를 익혀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다행히 저는 순수 문과생이라 암기력이 나쁜 편은 아니고 늘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자 하는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어려운 분야라고 하더라도 이왕 공부하는 김에 제대로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도전장을 내밀곤 했습니다.

ITT비즈니스중국어번역시험, 한국사 1급, 법무부 난민통역인 인증시험,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필기 등등. 그 동안 늘 무언가를 공부하고 실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복해왔고 앞으로도 배움의 즐거움을 즐기면서 그 과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제 봉사 활동을 포함한 한국 생활 경험담들도 많이 들려주고 싶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훌륭한 통번역사가 되어 내가 사랑하는 두 나라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힘껏 달릴 것입니다.



2024년 한마음 걷기 축제
패션쇼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10년 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다



이 름 **아이치 사티아브라타**
(AICH SATYABRATA)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인도

10년 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다



박사학위 수여식

10년전, 높은 교육 수준과 최첨단 연구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온 한국이 이제 저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왔고, 특히 저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R&D) 규모는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어 자랑스롭습니다.

저는 학위 취득을 위해 한국에 온 후,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제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고, 학교 안팎 모든 분들의 다정함이 저의 생활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50편이 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아닌 교수로써 10년 전의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지원과 따뜻함을 기억하며 저 역시 학생들에게 열정과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열렬한 팬이라 자부합니다.

현재 한국은 저의 국가이자 정체성 일부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글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언어였고, 이로 인해 저는 일상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장벽으로 지쳐갈 때 쯤, 저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를 더욱더 잘 이해하고 싶었던 저는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하였고, 지금까지도 이 결정이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행사 수상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제게 비단 한국어 뿐 아니라 한국 문화, 전통, 사회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저의 한국 생활 적응과 지역 사회로의 통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수료 후 영주권까지 취득하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더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때, 부산시청과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서 외국인을 위한 공식 커뮤니티를 출범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써 한국 생활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던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외국인 대표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저의 목표는 한국을 선택한 다른 외국인들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한국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외국인 대표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역할은 저에게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으며, 기회가 된다면 저는 앞으로도 이 활동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협력하여 'Life in Busan' 웹사이트 구축에 참여한 것입니다. 'Life in Busan'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보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들은 일상 생활에서부터 행정 업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국에서의 원활한 일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Life in Busan'이 외국인 커뮤니티에



MBC 방송 출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해당 프로젝트에 제가 기여한 점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지원하고 대변하는 역할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모든 외국인이 환영 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학업을 마친 후에도 한국에 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받은 많은 것들에 대해 보답하는 길은 강의를 통해 저의 지식을 공유하고 창업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새로운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제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창업과 사업 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많은 것들이 생소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기관과 조직으로부터 사무 공간, 멘토링, 그리고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제가 사업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두가 함께 성공하고자 하는 한국의 창업 환경 덕분에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소외감 보다 따뜻한 환영과 강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게 사업에 대해 가장 큰 동기를 주었던 것은 한국이 R&D(연구개발) 및 첨단 기술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변화와 혁신을 장려하는 국가이며, 이러한 환경은 제게 새로운 도전 의식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을 이용하여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경제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 역시 창업 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AIS 19 스피커 참여

받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의 목표는 한국에서 성공하고,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과 창업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고, 사업을 시작하며, 한국이 더 강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한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제게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부산 영어방송 패널 참가



마라톤 봉사활동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



스타트업 행사 초청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기업인



이 름 김 현 기

국 적 대한민국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기업인



다문화 가정
자녀돌봄 센터후원



이민자, 다문화가족 초청
국토탐방1

✧ 이주민, 다문화가족 등 재한외국인들의 사회통합에 앞장

기업을 영위하면서 경제적 이익 창출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지역사회의 뜻있는 기업인들과 함께 여러 봉사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일자리 마련 및 후원 등 활동을 하던 중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사회통합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통합협의회는 2016년 인천·김포·부천지역의 재한 외국인들의 재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로 출범하여, 인천출입국과 협력하여 이주민들의 재정착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도 뚜렷하게 정착을 하지 못했던 다문화 가족, 줌머인, 그리고 2016년부터 난민으로 입국하게 된 미얀마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아이들이 편견없는 교육혜택을 받으며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신적·물리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이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사회통합역할에 적극적으로 활동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및 관내의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와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쉼터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후원과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교실, 한국어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불우 이웃과 청소년 교육후원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다문화가족 초청
국토탐방2



재정착 난민
제2기 퇴소식 참석

난민은 물론 재한 외국인(다문화 가정)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조기 정착하여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위해 취업활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기 재정착난민으로 들어온 미얀마 가족 중 7가족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정착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2기, 3기에서도 인원을 수용하여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과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가 계약만료 후 다시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 재한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을 위한 활동

법무부 주관의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압록강 및 독도 탐방, 이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국토탐방, 장학금 지급, 출산 장려 축하금, 한국어학습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에는 부천체육회, 부천양궁협회 주관으로 이주민(다문화) 가족 양궁대회 및 한가위 민속놀이 체험의 장을 열어 미얀마, 중국교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고려인동포, 필리핀, 베트남, 일본,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약 200여명의 이주민 가족이 함께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등 뜻 깊은 어울림의 장이 되었습니다.

재외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로 체험에 임하였고, 여럿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만족과 감사를 보여준 이주민들에게서 열정과 희망을 보게 되어 매우 감동이었습니다.

재정착 난민 회사
현장방문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후원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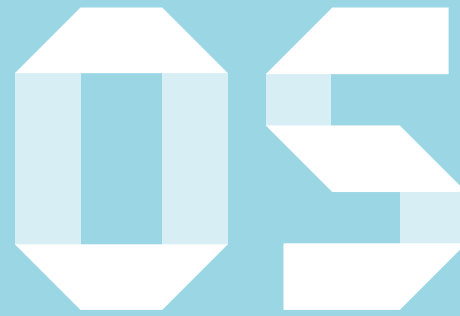
이처럼 작은 노력이지만 이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느끼고 지역사회와 함께 정주하고 그들의 권리를 펼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여러 방안을 위해 노력하는 안내자로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보람과 긍지로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이민자 가족 한가위 및 양궁대회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국토탐방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의 “아름다움 나누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의 “아름다움 나누기”



2024.3.29. '인천중구노인복지관' 봉사활동



2024.5.8. '어버이날' 기념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는 현재 66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자조모임으로 2024년부터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리를 잘 하시는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계셔서 음식봉사를 특히 좋아하십니다. 손재주가 있는 회원들이 많아 따로 강사를 섭외하지 않아도 서로 재능기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3월 29일에는 『인천중구노인복지관』에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이 직접 만든 ‘베트남 반미샌드위치’와 사회통합협의회에서 후원한 과일·음료 전달하여 한 해의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야채 ‘고수’를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등 이야기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드릴 음식을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 2024년 5월 8일에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방문객 대상으로 ‘어버이날’ 기념하는 카네이션 만들기과 동반 어린이 대상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한 이 행사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이 특별한 이벤트에 즐겁게 참가했고, 봉사하신 선생님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 이유진



2024.5.19. '17회 세계인의 날' 음식체험

✧ 2024년 5월 19일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하여 많은 네트워크 회원들이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회장님께서 태국음식재료 일체를 원하시고 요리까지 지인과 함께 요리하셨고, 부회장님도 혼자 몽골음식 전부를 요리해 오셨습니다. 베트남 요리 담당이셨던 회원분들도 모두 가족까지 동원하시어 맛있는 베트남 샌드위치와 베트남 커피를 선보이셨습니다. 중국요리팀은 의상을 멋지게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미소로 다양한 간식과 음료를 나눠주셨고, 중앙아시아요리팀도 화려한 의상과 소품까지 마련하시어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하루종일 고생하시고서도 웃으며 서로 격려하시는,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들입니다. 덕분에 많은 인천시민들이 좋은 추억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많은 부스라 체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시 음식은 손맛과 정성인 듯합니다. 바빴고 힘들지만 그 누구하나 힘든 내색없이 밝은 모습으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모든 봉사자분들도 즐거웠고 의미있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 한성진

“오랜만에 몸을 풀어서 걷기 운동되고, 여러나라 음식 문화체험을 즐기고 언니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런 의미있는 행사가 매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 이윤정

“아이들과 어른들 그리고 인종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러 온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제를 즐겨서 저도 모르게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푸짐한 음식들과 음료, 디저트 등 세계의 나라를 한 번에 여행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뜻깊은 날이었고, 모두가 진심으로 축제에 임해줘서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2024. 6. 25.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관람

✧ 2024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인 6·25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인천지역의 역사 명소를 탐방하고 환경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가서 해설사님의 설명을 듣고, 인천시민애집(舊역사자료관)에 가서 음악공연도 보고 인천자유공원에 가서 쓰레기 줍는 플로깅을 하였습니다.



2024. 7. 11.~ 7. 14. '국토탐방'

✧ 인천청 사회통합협회의 후원으로 2024년 7월에 3박 4일간 경상북도 울릉군(울릉도, 독도)을 다녀왔습니다. 관광 명소를 탐방하고 해설을 들으며 대한민국 영토 보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외국인청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융합할 수 있게 만든 많은 프로그램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독도탐방을 통해서 저도 한국의 한 국민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도의 땅을 밟은 순간 심장이 뛰는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대합니다.”

- 김춘하



2024.10.20. '한마음 걷기축제' 참가, 홍보

✧ 2024년 10월 20일 '제11회 한마음 걷기축제'에 참석하여 우리 청 이민자 네트워크 홍보 기념품(손수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2024. 11. 05. 과일청만들기 활동을 하여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에 수제 과일청 100병과 그동안 만들어 온 손뜨개 수세미 300개 기탁하였습니다.



2024. 9. 11. 손뜨개 수세미 만들기

“한마음 걷기축제에 참여하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과 하나가 되어 걷는 시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유대감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이 축제의 의미를 전할 수 있어서 기쁩습니다.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 전예진

“저는 손뜨개 수세미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아 계발하면서 저의 보잘것없는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써 제가 받은 도움만큼 다 봉사할 수는 없지만 일단 힘 달는데까지 노력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주신 외국인청에 감사하며 덕분에 한국 생활이 더 의미있게 되었습니다.”

- 고회민



2024. 12. 7. '하울림 합창단' 물품 후원

✧ 우리 청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정착 난민 어린이 합창단의 활동을 응원하며 멘토로서의 이민자 네트워크 역할 수행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에는 「하울림 합창단」 정기공연을 관람하고 간식을 후원하였으며 「다문화 예비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공책 및 필기구도 후원하였습니다.



2024. 12. 9. '보라매보육원' 봉사활동

✧ 우리 청 사회통합협의회와 이민자 네트워크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국민과 이민자가 상생하는 사회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인천시 소재 '보라매보육원'에 생필품을 기부하고 환경청소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외국인청 봉사자로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 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그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서로를 돕고 집에 갈 때 항상 좋고, 행복한 기억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외국인청에서 진행했던 '세계인의 날' 음식축제, 손뜨개 수세미, 보라매보육원 등 굉장히 즐겁고 모두 잘 마무리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 밤바체령



2025.2.11. '브솔시내' 원예테라피 봉사활동

✧ 2025년 2월에 관내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브솔시내'를 방문하여 우리 청 직원의 불우이웃 성금과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으로 제작한 미니정원을 기부하고 시설 이용인들과 함께 토피어리를 만들며 원예테라피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식적인 기부활동이 아닌 살을 맞닿으며 온기를 나누는 봉사활동을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미 샌드위치 나눔 활동



아버이날'기념



카드네이션 만들기 체험 진행



2024.5.19. '17회 세계인의 날' 음식체험



2024.5.19. '17회 세계인의 날' 음식체험



2024.5.19. '17회 세계인의 날' 음식체험

미담사례집



2024.5.19. '17회 세계인의 날' 음식체험



2024.5.19. '17회 세계인의 날' 음식체험



2024. 6. 25.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람



2024. 6. 25. '인천시민애집' 관람



2024. 6. 25. '인천자유공원' 플로깅



2024.10.20. '한마음 걷기축제' 참가, 홍보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2024. 11. 5. 과일청 만들기



2024.11.5.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기탁식



2024. 12. 9. '보라매보육원' 봉사활동



2024. 12. 9. '보라매보육원' 봉사활동

06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도전과 성장의 기록: 산업연수생에서 영주권자가 되기까지"



이 름 **구룽 산제이**
(GURUNG SANJAY)

국 적 **네팔**



"도전과 성장의 기록: 산업연수생에서 영주권자가 되기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산제이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가족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주변 친구 중 많은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영국으로 용병을 나가려 훈련을 받고 있었고, 이미 직업 군인이 된 친구들도 있었으며, 외국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팔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집안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기에, 결국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선택지 중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초기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의사소통의 문제, 새로운 생활 방식, 그리고 직장 문화의 차이는 적응하는 데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의 직장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적응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단순 노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상 대화를 넘어서 수준 높은 한국어를 배워 대학교에 진학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6년간 산업연수생으로 냉면 공장에서 일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고, 산업연수 기간이 끝난 후 한국어학당에 등록하여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7년 동안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으로서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산업연수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받았지만, 유학생들 중에는 머물 곳이 없어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에서 4년간 생활해야 했습니다. 법무부 허용 기준에 맞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유학생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은 많지 않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학부 3학년 시절, 10년 동안 떨어져 지내던 네팔에 있는 아내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결국 쉼터에서 나와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면서 심적으로 큰 안정과 힘을 얻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참여

마음의 안정을 얻고 나니,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통역 상담 업무를 맡게 되었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용 문제, 법률 문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 병원, 경찰서, 은행 등 여러 기관을 함께 방문하며 통역을 지원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던 중, 2015년에 뜻깊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회의에서 외국인 대표자로 선정되어 3년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여, 다양한 정책 제안과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외국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다 보니, 저에게도 많은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쌓여갔습니다. 네팔에는 아직 아들이 남아있었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며 알게 된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아들을 한국에 초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4년 네팔을 떠난 후, 2015년에 드디어 우리 가족은 한 지붕 아래 함께할 수 있었고, 그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 순간이자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예쁜 딸도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함께하게 된 후 찍은 가족사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던 때에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가족이 한국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혼이민이나 사업자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 보증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자 체류비자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증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영주권을 얻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주변에 괜한 부담이 될까 혼자 영주자격을 준비했지만, 자격조건이 충분하지 않아 한 차례 반려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관리과 직원분들의 도움 덕분에 꼼꼼히 준비하여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지만, 결국 제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힘쓰며 살아왔지만, 때로는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주민 상담

2025년 현재, 저는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과 유학생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경험 덕분에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더 큰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로 활동하며 얻은 경험들은 제 인생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지금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많은 외국인이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상담

결국, 제 삶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를 넘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감사의 마음과 사랑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면서,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자 합니다. 작은 노력들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그들을 위한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2018년 대학원 졸업식



수원 교민들과 함께



네팔교민회 축구대회



네팔대사관 행사

01

동반 비자(F-3)부터 유학 비자(D-2)까지



이름 **구룽 먼질**
(GURUNG MANJIL)

국적 **네팔**



동반 비자(F-3)부터 유학 비자(D-2)까지



엄마와 함께 제과제빵 만들기



중도입국 친구들과 함께

안녕하세요? 저는 1년 6개월 전에 온 구룡 먼질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창 시절부터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한국에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초대 덕분에 저는 한국의 놀랍고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네팔과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해 흥분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살고 있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실 때마다 저는 외로웠고 고립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혼자 외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알파벳과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생활 방식에 대한 경험은 적은 외국인으로서 혼자 마트에 가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트 직원이 한국어로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저는 번역 앱을 사용했고, 한국어로 말할 수 없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해하거나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등을 알아가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들이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과제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고,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면서 더 적응력 있고 열린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어머니가 저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공부하고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는 저를 돕고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어학당 친구들과 함께



아주대학교 오리엔테이션



바리스타 과정

시작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한국어를 잘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것을 알아차릴까봐 긴장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들은 저를 평가하지 않으셨지만 저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한국 사람들과 더 편안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직원 선생님들은 정말 이해심이 많고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언어 수업 외에도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제과제빵 만들기, 바리스타 과정, 운전면허 교육 등 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저에게 정말 유용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에게 실용적인 기술을 갖추게 했습니다.

저는 현재 아주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대학에 등록해야 했습니다. 대학 등록 절차는 우리나라와 달랐기 때문에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직원 선생님들이 모든 서류 준비와 검증 과정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서류 검증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공부하는 젊은 외국인을 위한 좋은 장학금을 찾는 데도 도와주었습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의 도움으로 등록 과정이 훨씬 수월해졌고 시간과 에너지 소모도 줄었습니다. 멘토와 선생님들의 모든 노력으로 좋은 대학에 등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이 나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를 인도해 준 많은 지지와 응원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밝은 미래를 바라며 저에게 도움을 준 모든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승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이 말이 저를 더욱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나의 두 번째 고향, 한국에서 피어난 꿈과 희망 - 미얀마에서 온 이주민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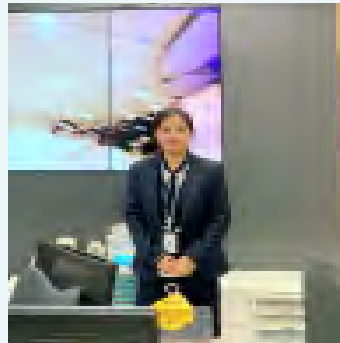


이 름 **임묘떼인**
(YIN MYO THEINT)

국 적 **미얀마**



나의 두 번째 고향, 한국에서 피어난 꿈과 희망 - 미얀마에서 온 이주민의 이야기



은행 업무

2013년 7월 19일,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위해 미얀마를 떠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첫아이를 출산하고 7년 뒤, 둘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근무는 저의 적성에 잘 맞지 않았고 육체적으로도 고된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얀마에서 함께 대학에 다녔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친구는 제게 "한국에서는 학위증이 없으면 공장에서만 일할 수 있다"며 학위증을 따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과 격려를 해줬습니다.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2017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 나중에 모국에 돌아가서도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쌓으면서 저는 점점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에서 실습하기도 했습니다. 실습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과 다문화 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미얀마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한국인들에게 미얀마어를 가르치는 현지 강사로도 활동했습니다.



미얀마 축구 대회



수원에 있는 미얀마 점



KOICA 활동



노지원 실습



미얀마의 한국어 학원

대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저는 전북은행 수원 외국인 금융센터에 입사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배우면서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 외에도 대학교에 다니기 전부터 해왔던 외국 근로자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원 외국인청에서 출입국 관련 서류 준비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을 돕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미얀마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어갔습니다. 미얀마 현지인들이 주최하는 축구대회나 기념일 행사에 참여하며 고향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이어갔습니다. 아픈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병원에 동행해서 통역을 도왔습니다. 또한 퇴직한 미얀마 사람들의 퇴직금 문제나 구직 활동에 대한 통역 및 노동법 관련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도록 노력하였고, 그들의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은행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며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킬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으로 미얀마와 한국의 관계 개선 역할을 맡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은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낯선 문화와 환경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잘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에게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마음과 도움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미얀마와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9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대한민국에서 꿈을 꾸다.



이름 라연우

국적 대한민국

원국적 시리아



대한민국에서 꿈을 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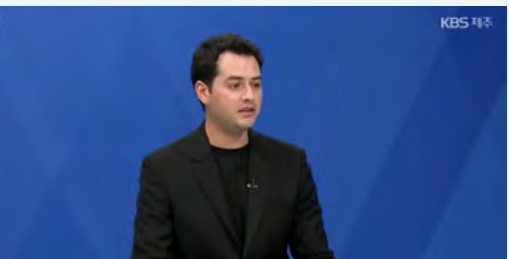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13년째 살고있는 제주 도민 제주라(羅)씨의 시조 라연우입니다.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한글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귀화 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처럼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 작명소를 찾았으며 받은 세 개의 이름 중 선택한 이름이 라(그물羅)연(넓을衍)우(하우씨/임금우禹)입니다.

저의 출신국은 시리아입니다. 2012년 내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국에 머무는 것이 힘들게 되었고 그렇게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면서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먹었던 '미역국'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렇게 2012년부터 제주에서 살기 시작했으며, 13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는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13년 전의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한국어가 서툴러 저의 생각과 상황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 너무 답답했습니다. 2012년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 제주에서 옷이나 먹을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곳곳하게 생활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짧지 않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였고 왜 제가 적응이 안되는지 늘 고민을 했습니다. 스스로 많은 고민한 결과, 저는 그동안 제주 사람들의 언어나 음식, 풍습 등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제 주변 환경에 녹아들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어는 말끝이 너무 길고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배우지?', '한국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네? 한국 음식을 못 먹겠다.' (시리아에서 돼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깨우친 아침부터

광주세계인권포럼

'난민의 날' 뉴스 출연



서울대학교 토론회의



법무부멘토를 위한 교육



멘토 위촉식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게 되었고 '한국을 이해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상 한국 사회에 적응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한국어를 그 누구보다 잘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책이나 학교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할 여유가 없어 주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다섯 시부터 발에서 무를 뽑다가도, 옆에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이 궁금하면 바로 물어봤습니다. 일상 속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조금씩 알아듣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바리스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며 좋은 기회로 카페에 취직이 되었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적응하면서 저는 점점 꿈을 크게 그리게 되어 귀화를 꿈꾸었고 통역사를 꿈꾸었습니다.

2018년 제주에 예멘 난민들이 대거 입국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난민 신분으로 제주에 있었기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급히 아랍어 통역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통역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통역 봉사활동을 하던 곳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 사회에 스며들어 있었지만, 가슴에 큰 구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어느새 한국이 나의 나라라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결국 그 어디에도 소속되어있지 않다는 생각이 늘 저를 우울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지 5년이 되던 해에 귀화를 결심하였습니다. 주위에 일반귀화를 하려는 저에게 귀화를 너무 우습게 본 것이 아니냐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멘토

있었지만, 그래도 밀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귀화 관련 정보를 모았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저는 본국에서 서류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시험공부를 하는 등 귀화 준비를 하였습니다. 2년 후 귀화가 되었다고 전화를 받았던 날은 너무 기쁘고 벅차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리스타, 통역사, 귀화까지 한국에 와서 원하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귀화 후 저는 이주민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일하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멘토단은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멘토로서 강사로 활동하며,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난민 인식 개선 강의를 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다문화가족 정책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멘토 수업

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 인류학이나 사회학을 공부하고, 환경 보호 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 내 나라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극 출연



제주 인권위원회

10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이민자 네트워크 “우리 쌀 활용 제주 음식 만들기” 교육 일지



제주 이민자 네트워크



이민자 네트워크 “우리 쌀 활용 제주 음식 만들기” 교육 일지

2024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특별한 이민자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5주간에 걸쳐 다섯 차례 진행한 ‘우리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주 음식 만들기’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제주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요리 강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저도 제주의 모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요리 강의를 들으려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선착순 신청에 번번이 실패하여 이제는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2024년 8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 담당자로서 이번엔 또 어떤 즐겁고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할까 고민하던 차나, 제주 사회통합협의회 총무이신 홍임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우리 쌀 활용 요리 교육입니다. 홍임숙 위원님은 평소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으로, 법무부 법사랑위원, 송죽원 장애인요양시설, 제주음식연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일회성 교육 말고, 연속성 있게 진행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끼리 서로 친해질 수도 있고, 보통 문화센터에서도 교육 기간이 한 달이잖아.” 라는 말씀에 수없이 신청에 실패했던 저의 문화센터 교육이 스쳐 지나갔고, 쉽게 얻을 수 없는 문화센터 교육의 기회를 이민자 분들께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요리 강의는 어려운 용어가 상대적으로 적어 한국어가 서툴러 그간 행사 참여가 어려웠던 이민자 분들께 접근성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홍임숙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총 5주간의 걸쳐 우리 쌀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 수업을 기획하였고, 과장님과 청장님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주차 단호박쌀크림구이,
단호박쌀도너츠



2주차 단호박영양밥, 각색장국

대망의 첫 교육 날, 영문도 모른 채 업무지원이란 명목하에 행사에 투입되어 앞치마를 하게 된 청년인턴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출입국에서 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교육은 오늘이 처음이에요.”라는 대답을 하며 각 조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나누어 드린 것도 아닌데 자연스레 조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베트남팀, 중국팀, 출입국팀. 관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미소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직원이라 소개하니 왠지 저를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1주 차의 음식은 단호박쌀크림구이와 단호박쌀도너츠입니다. 조별로 단호박쌀크림구이를 완성한 후, 튀김 기름을 낭비하지 말자는 모두의 의견에 따라 각자 완성한 단호박쌀도너츠를 들고 삼삼오오 모여 다 같이 도너츠를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한곳에 모여 갓 튀긴 도너츠를 나눠 먹으며 서로 인사를 주고받기 시작하여 제가 계획한 교육의 취지에 맞게 남은 4주간 잘 진행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중국식 오이 썰기, 이건 베트남식 오이 썰기네요. 나라마다 오이 껍질 까는 습관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칼을 안쪽방향으로 해서 깎는데 베트남은 바깥을 향해서 껍질을 깎는 거 같아요.” 2주 차에 각색장국을 만들며 중국조의 어느 분이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양의 재료를 사용했는데 저희는 세 그릇이 나오고 저기는 네 그릇이 나오네요. 저희 조가 더 예쁘게 장식한 것 같아요.” 저만 여기저기 관찰하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모두가 서로 견제 아닌 견제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약 두 시간에 걸쳐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하니 서로 안부를 묻고 다음 주 교육에 함께 모여서 교육 장소로 이동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화기애애하게 교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미담사례집



3주차 모시개떡, 기름떡



4주차 제주밥상 차림 및 손두부



5주차 생과일모찌, 오메기떡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어요.” 3주 차에 처음으로 저의 권유가 아닌 어느 한 분이 먼저 사진 제안을 주셨습니다. 들던 중 반가운 소리에 “각자 만드신 모시개떡 가지고 오셔서 사진 찍을까요?”라고 외쳤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나니, 제가 보기엔 다 비슷하게 생긴 떡 중에 본인 팀이 만든 떡을 어떻게 알아보시고 바로 가져가시며 제게 한마디 하십니다. “사진 꼭 보내주세요”. 행사 때마다 모두가 어색해하는 사진 촬영을 요청에 의해 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4주 차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유명 손두부 가게에서 도움을 받아 손두부를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나라의 두부 요리에 대해 소개하며 자연스레 맛집 정보를 교환한 후 함께 두부로 만든 제주 한 상 차림을 맛보았습니다. 어느새 여러 이민자 분들께서 한국어가 서툰 친구를 데려와 함께 교육을 참여해주셔서 새로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5주 차 교육은 생과일떡과 오메기떡입니다. 5주 동안 교육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던 청장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셔서 행사를 독려해주시고, 농협제주본부에서도 이번 교육 의도를 전해 듣고 쌀 간편식 등 물품을 지원해주셔서 풍성하게 5주간의 우리 쌀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처음 시도해본 이번 장기프로젝트는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분들께 한국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나라별로 앉아있던 교육생분들이 자연스레 안부를 주고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를 어려워하시던 분들께도 적극적인 다음 활동 참여 약속을 받아 더욱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적극적으로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해주시는 제주 지역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분들, 매번 새롭고 유익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주시는 홍임숙 위원님을 비롯한 제주사회통합협의회의 위원분들께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1주차 단호박쌀크림구이, 단호박쌀 도너츠



2주차 단호박영양밥, 각색장국



3주차 모시개떡, 기름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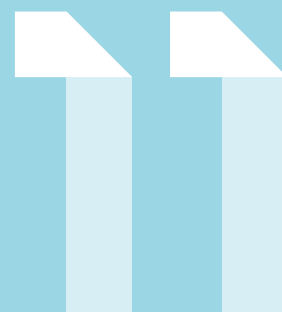


4주차 제주밥상 차림 및 손두부



5주차 생과일모찌, 오메기떡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엄마



이 름 MUNKHUU
TUMENTSETSEG

국 적 몽골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는 몽골 엄마 투매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벌써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유학생으로 혼자 입국했지만, 지금은 몽골인 남편을 만나 아들 2명, 딸 1명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몽골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편한, 몽골 음식보다 한식이 더 맛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스트레스를 푸는 반쯤은 한국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며 우리나라라고 착각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살고 있는 덕분인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녀 3명을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지만 특히 둘째 아들이 24주에 미숙아(870g)로 태어나 어려운 수술을 받아서 지금까지 다른 아이들보단 조금 특별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의 어려움과 낯선 나라에서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대한민국의 정, 그리고 한국사람들의 따뜻한 말과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엄마가 힘을 내야 아기도 힘을 낸다”는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병원의 의사, 간호사와 직원분들의 도움과 상담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들을 받으며 그때 알았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잠깐의 시간과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배려면 충분하다는 것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보답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2015년 1월부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으로, 2023년 3월부터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무소를 방문하는 몽골인과 타 국적 외국인에게 민원 안내, 통역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보육기관 봉사활동,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만두 기부 행사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강서구 화곡본동성당 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 어르신 활동 보조,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는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외국인으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고 “나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자긍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민간 외국인 상담단체인 노동인권회관에서 통역, 후원 물품 나눔, 빈곤아동 후원활동 등의 자원봉사도 하고, 2020년 1월부터 재한몽골인 두르웬베르흐 협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 재한몽골인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한-몽 문화교류활동, 대사관과 교민 간 가교 역할, 재한 몽골인 대상 한국어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몽골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재한몽골인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이민자 네트워크를 하면서 알게 된 출입국 관련 제도나 대한민국의 법령들을 알려주면서 스스로 보람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사회에서 쌓은 나의 경험이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하나은행 해외송금서비스업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체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쌓은 금융 지식들을 재한몽골인에게 교육하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여, 2023년 2월에는 몽골 대통령 노동 훈장을, 2024년 1월에는 몽골 경제부장관 우수직원 표창을, 2024년 12월에는 주부산몽골영사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0년 2월 재한몽골인
'두르웬 베르흐 잘로스 협회'
마스크 기부

미담사례집



2023년 5월 무료급식소 자원봉사

저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오지라퍼”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저를 오지랖이 넓다고 하지만 반대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봉사활동은 시간만 있거나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간이 빠듯할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받은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지나고 보니 봉사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좋은 분들을 알게 되어 더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받아 온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2023년 2월 몽골 대통령 훈장 수령

12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이민자들이 직접 빛은 만두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전달



서울남부출입국 이민자 네트워크

이민자들이 직접 빚은 만두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전달



'토마스의 집'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서울시 영등포구에는 1993년부터 인근 지역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노숙인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토마스의 집」이라는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토마스의 집은 1993년에 김종국 신부님께서 설립한 급식소로 일 평균 약 300명 이상의 어르신이 방문하는데, 우리 사무소 이민자 네트워크는 2023년에 배식과 설거지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며 힘들었지만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회원들끼리 토마스의 집을 방문하여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무료급식소가 고물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만두를 빚어 기부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미리 만두소, 만두피 포장용기 등을 준비하고 2024년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에 있는 이민자 사랑방에 소장님, 관리과장님,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 총 21명이 모여 정성스럽게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베트남, 몽골, 독일, 미국,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회원들이 모여 조를 2개로 나누어 1팀은 고기만두를, 나머지 1팀은 김치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만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만두를 많이 빚어본 중국 출신 회원들이 노하우를 알려주며 즐겁게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직접 빚은 만두를 찢어 먹기도 하고, 각자의 국가에서 만두를 어떻게 만드는 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표 수량 1,000개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 모두가 땀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1,120개의 만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직접 빚은 만두를 포장하여 토마스의 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마침 목요일은 무료급식소 정기 휴무일이었던 관계로 어르신들께서 당일에 만두를 드실 순 없었지만 관계자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만두를 가져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민자분들께서 직접 빚은 만두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어르신들께 배식을 나눠드릴 때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이민자분들과 직접 만든 만두라고 꼭 설명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몽골 국적의 회원 한 분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작은 정성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고, 중국 국적의 회원 한 분은 “한국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회원들이 전달한 만두는 2024년 11월 25일에 토마스의 집에서 급식소를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다들 맛있게 만두를 드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원들 모두 기뻐했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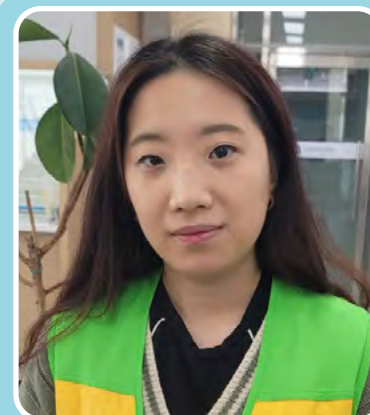
다양한 국적의 회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어 모양은 가지각색이었지만,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만큼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3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내 꿈은 변호사입니다.



이름 NURGASHEVA
MILANA

국적 카자흐스탄



내 꿈은 변호사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가족과 함께

✧ 한국 적응과 학교생활

저는 2015년 12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13살의 어린나이였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안산이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안산에서 지내면서 원곡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중학생의 나이였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한국어를 배우려고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너무 몰라서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같은반에는 러시아 남자아이들 밖에 없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국 여자아이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괜찮아졌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에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사회 등 교과과목도 알려주었습니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학교에서 제게 국가장학금도 주었습니다. 상장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웠더니, 2년 후에는 한국어가 많이 늘어 꽤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지금 현재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산센터에서 러시아어 통역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출입국의 여러 직원분들과 공익근무요원 오빠들이 제가 외국인인 아니라 한국사람 같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하니 제게 격려도 많이 해주고, 친근하게 말도 많이 걸어줍니다.

✧ 출입국 봉사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곳은 청주출입국사무소였습니다. 2020년도에 가족과 함께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청주출입국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안산출입국 자원봉사

처음에는 일주일에 2~3회 봉사를 했지만, 차츰 봉사하는 것이 너무 좋아져서 주5일 내내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3개 언어 구사가 가능해서 러시아 사람뿐 아니라 중국, 미국,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다른 나라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매일이 설렜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다시 안산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도 자원봉사 지원을 하게 되었고 현재 안산다문화지역특구에 있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산센터에서 통역사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역외에도 출입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상담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와 다른 국적의 사람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가끔은 너무 힘들기도 하고 간혹 트러블도 생기지만, 그래도 저는 저와 같은 외국인인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교회 봉사활동

✧ 봉사 외 활동

저는 서울에 있는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맡아서 하는 일은 한국-러시아어 통역, 교회 온라인 카페 운영과 찬양, 율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역 봉사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한국말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통역봉사를 많이 하다보니 한국어를 자주 쓰게 되어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 러시아인이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며 지내다 보니 저는 한국인 친구도 많아지고 러시아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미담사례집



졸업식

2024년도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으로 제게 새로운 꿈이 또하나 생겼습니다.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로스쿨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되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것을 잘 알지만,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길 “밀라나, 너는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성격이야, 그러니 아버지는 니가 분명히 해낼 것이라고 믿어”라고 늘 말씀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차근차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언젠가는 제가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얻고 싶을 만큼 이 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제 가족과 제가 여기 한국에서 잘 지내며 잘 살 수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외국인 여러분도 한국에 살면서 원하는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통역사(러시아어) 자격증(상장형)



사법통역사(러시아어) 자격증(카드형)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나의 한국에서의
삶의 경험

이름 정 팔리타

국적 대한민국

원국적 태국

나의 한국에서의 삶의 경험



안녕하세요. 저는 정 팔리타입니다. 저는 ‘미소의 나라’라고 불리는 태국에서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서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배려하며 돕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일상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2005년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제 인생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까지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왔던 저는 한국인 남편과 함께하는 삶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언어, 문화, 사회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어라는 언어 장벽은 한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저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희 가족은 인천 도시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복잡한 도심속의 낯선 주변 환경에 제가 잘 적응 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였고,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친구가 지금 살고있는 도시보다 조용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며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권유로 저희 가족은 시흥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덕분에 저는 좀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길을 다니다 보면 한국 분들이 종종 말을 걸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어디에 사세요?”, “한국에는 언제 오셨나요?” 같은 질문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과 소통의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기회를 통해 저는 한국생활에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꽤 알아듣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말하기가 아직 유창하지 않아 대화할 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장벽으로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각국 이민자들과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인력상담센터(태국어 통역)

그러나 저는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한국인의 배우자)이 많아서 자녀 교육, 학원 선택, 육아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어가 자연스레 많이 늘게 되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주부들과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한국어를 더욱 잘 배울 수 있게 하였고 문화적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저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국의 예술, 역사, 문화, 한국사회에서의 생활 방식, 적응 방법 등을 배우면서 실용적인 도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배운 정보들을 공유하고 태국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태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강사를 맡아 안전교육을 위한 통·번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출입국 이민자네트워크 행사

또한 태국 서포터즈로서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며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태국의 예술과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태국어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상담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인력상담센터에서 태국인 상담사로 활동하며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상담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주며 그들의 원활한 한국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한국에서 저뿐만아니라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태국 상담원)

또한 저는 안산출입국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행사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한국사회의 일원임을 느낄수 있어 보람차고 기쁩니다.

저는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며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줌으로서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한국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 가족과 함께 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다문화이주민센터 개소식 참석

15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나는 상호문화 전도사



이 름 **최연화**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중국

나는 상호문화 전도사

“나는 누구일까?”

다른 이주민들과 같이 나 또한 끊임없이 이 물음표를 안고 살아왔다.

처음 한국에 정착할 때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용감한 아내였다. 하지만 그 용감함은 불과 한달 만에 자취를 감추고 이제 막 눈 뜬 신생아가 되었다. 모르는 것 투성인 세상, 모든 것을 알아가야 했다. 하나를 배우니 10개를 알아야 했고 10개를 배우니 100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 배움에 지쳐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쯤 나는 엄마가 되었다.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했고 세상 부러운 것 없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나는 ‘외국인 엄마’가 되었다. 외국인 엄마,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에 느껴지던 차가운 시선은 지금 생각해도 나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진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는 외국인이었고 서툰 한국어와 한국 교육에 대한 무지는 나를 벼랑 끝으로 내밀었다. 답은 하나였다. 배우자! 직업을 갖자! 아이를 위한 몸부림, 아니, 내 자존심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나는 엄마에서 중국어 강사 원장이 되었고, 이제는 교수가 되었다. 서툰 한국어도 제법 유창해져 나만의 스킬로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랑받는 한국어 강사가 되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이주민들에게 어려운 한국생활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던 자원봉사는 나를 상호문화 전도사로 만들었다.

그렇다. 오늘날 나는 바~쁜~ 상호문화 전도사라고 불리우고 있다.

나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강사다. 내가 학습하면서 경험했던 학습 노하우를 수업에 녹여내면서 보다 쉽게



한국어 강의 중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 수료식



상호문화활동, 친정가자!
이주민과 선주민이 같이

배우는 강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에게 학습하고 싶은 한국어가 되게 동기부여를 우선시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다. 때로는 교실에서, 때로는 벚꽃 나무 밑에서, 때로는 조리실에서, 때로는 임진각(현창체험학습)에서 경험 및 학습을 하고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살아 있는 강의를 하려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진심이 전달되었던 것일까?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습자들이 아름아름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기자가 생길 정도다. 그렇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모든 학습자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어는 다양한 것 같다. 진심을 다해 같이 나누고, 같이 격려하는 학습 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적재적소에 넣어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삼인행 필유아사’라는 말처럼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서로의 다른점을 배우도록 한다. 그러자 어느 순간 내가 아닌 우리가 되었다. 그렇다. 우리! 우리 반, 우리 교실, 우리 선생님, 우리수업, 우리한국어교실, 우리의 꿈이다. 한국어 속에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같이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는 다문화학습관리사 대표다. 다문화학습관리사는 이중언어가 가능한 이주민들이 학습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해 한국어를 비롯한 학교 교과 강의를 하고 심리정서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 지역아동센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역학습관 등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우리는 교실에서 하는 교육형 한국어 외에도 다양한 참여형 수업을 한다. 때로는 요리를 하면서, 때로는 놀면서, 때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때로는 만반의 준비로 발표를 하면서, 때로는 팀으로, 때로는 모두 같이 하나의 과제를 완성하면서 한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꽉 닫힌 마음을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조금씩 두드리면서 열고 들어가 보듬어 준다. 어느날부터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기고 틈만 나면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직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의논한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봉사를 한다. 우리 또한 사회구성원이기에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약속하며 김치도 만들어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유난히 쓰레기가 많다고 제기되는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쓰레기줍기(줍킹) 활동도 한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주민 선배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이주민들이 같이 협력하여 봉사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역량 강화를 하면서 3D업종이 아닌 우리가 모국에서 교육받았던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정서에 알맞게 우리가 먼저 습득하고 체험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주민들에게 학습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같이 성장하고 같이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면서 우리의 울타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작년에는 다문화학습관리사가 교육부 대상을 받고 나는 경기도 개인 평생학습 대상을 받는 영예도 얻었다. 2년간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역할과 우리만의 강점을 인정받아 올해는 예산도 받아 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같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강화시켜 우리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학습관리사의 길은 그 어디에 없는 최초의 길이다. 나는 그 대표가 되어 앞으로 가야할 길을 선생님들과 같이 모색하며 한발짝 한발짝 나아가고 있다. 길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 길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다문화학습관리사 선생님들과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지금 가는길이 현재는 힘들겠지만 우리 후배들에게는 꽃길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브릿지다. 안산시는 상호문화도시이자 114개국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도시이다. 하지만 선주민들에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구성원이다. 싫어서이기보다 잘 몰라서 생기는 유리벽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학습관리사 행사 진행
(상호문화 체험 활동, 세계여행)



김밥으로 소통해요
(봉사활동)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닌다. 때로는 봉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계 요리 나눔이 되기도 한다. 또 때로는 행사가 되기도 하고 노래자랑이 되기도 하고 포럼이 되기도 한다. 매개체는 중요하지 않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 장에서 흔하게 들리는 말이 바로 “아~ 그렇구나!”, “아~ 나도 그런데.”, “아~ 몰랐어.”이다. 굳이 이론적 설명이 필요 없었다. 자연스럽게 주거나 받거나 했더니 그냥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브릿지의 역할을 잘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나와 같은 브릿지가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고백을 한다. “같이 브릿지 할래?” 거절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선뜻 따뜻하게 손잡아 준다. 그래서 진심의 브릿지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상호문화 발표자다. 나는 토론자다. 나는 위원이다.

나는...나는...



이주민들과의 여행

나의 수식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힘차고 신난다. 그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같이 아름다운 내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길이 평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가치가 있고 꼭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일체유심조, 진심은 통할 것이다. 절실한 꿈이 실현되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상호문화 전도사로 브릿지 역할을 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 갈 것이다.

나는 상호문화 전도사 최연화다.

16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우리나라 강산 곳곳에 강산의 나눔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름 김강산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파키스탄



“우리나라 강산 곳곳에 강산의 나눔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강산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에서 중장비 건설 기계 제조와 수출업을 하고 있는 대표 김강산입니다. 20여년 동안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다방면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문을 구했고 어려울 때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시행착오와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큰 격려와 응원 덕분에 다시금 일어서기를 반복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든 시기에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제가 베풀 때라고 생각하여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봉사 활동으로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해 독거노인분들에게 생필품을 나누어드렸는데 그 중 한 어르신께서 “외국인한테 내가 이렇게 도움받아도 되나?”라고 어색해하시더니 잠시 후 등을 두드려주시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맙데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소하지만 따뜻한 한마디가 저의 나눔의 의지를 지금까지 불태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 복지시설에도 봉사 활동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부모가 주는 따뜻한 사랑을 다 채워줄 순 없겠지만 저와 함께하는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부모의 빈자리를 잠시 잊을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신나게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국에서의 제 고향인 경북 경산시를 시작점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릴레이식 장학금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겉모습이 외국인인 사람이 릴레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약간은 생소했던지 한때 이슈가 되어 서울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출연 후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시고 추천해주신 덕분에 “경상북도 자랑스러운 도민상” 과 대통령상을 수상받았고 사랑의 열매에서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KBS 아침마당 출연

저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의 약 220여개 되는 모든 시·군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기본 교리 중에 “나눔이 행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나눔 활동이 나의 한국인 이웃들에게 작은 행복으로나마 추억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나가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필품 전달



직장 경험도 없던 네팔 사람의 성공적인 한국 생활 적응기



이 름 THAKURI BIBEK

국 적 네팔



직장 경험도 없던 네팔 사람의 성공적인 한국 생활 적응기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THAKURI BIBEK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한국에 오는 것을 꿈꾸는 외국인들이 많지요. 저는 올해 한국에 온 지 8년이나 되었는데 처음 한국에 온 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 역시도 한국에 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네팔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고용 허가 시스템(EPS)-TOPIK’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1년 이상을 네팔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에 갈 수 없을까 봐 매우 초조했습니다. 그때 저는 긴장됐고 두려웠고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못 가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건 헛수고가 될 텐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무 많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제가 꿈꾸는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도움이 되었는지 그 믿음은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12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직장 동료로 만난 외국인 친구의 소개로 외국인 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신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할 땐 거리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봉사도 했는데 “감사합니다”하고 마스크를 받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센터에 다니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동료들과 함께 ‘천안 외국인 축제’의 ‘K-trot’ 경연에 참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중에는 각자의 직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센터에 모여서 함께 안무 연습을 했습니다. 축제 당일, 네팔의 전통 의상을

외국인 축제 k-trot
경연 참가 무대



경복궁 한복 체험

입고 무대 위에 올랐을 땐 무척 떨렸는데 막상 공연을 시작하니 신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팔 옷을 입고 한국 트로트 음악에 맞춰 공연을 하니 모두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눈물이 흐르는데요.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한국은 너무 외로웠고, 네팔과 다른 한국문화도 낯설었습니다.

게다가 네팔에서도 직장 경험이 없던 저는 한국의 직장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용어가 익숙하지 않았고, 상사와의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급여가 밀리는 경우도 있어 정말 힘들었는데 근로자 수를 감축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비자 기한이 다가올 때는 또다시 네팔에서의 기다림이 필요할까 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중에는 더 나은 날이, 좋은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동료들도 제가 일하는 동안 저를 도와주고 더 강해지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곤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한
자원봉사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E-9에서 E-7으로 비자를 바꾸는 데 성공하여 더 오래 한국에 남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한국에 올 때 빌린 대출 빚을 다 갚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보살펴준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입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에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에 한국문화 체험을 하러 가기도 했는데요, 한복을 입은 저와 제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반가워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쌓고 보니 한국의 규칙과 시스템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행동이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한국 사람들과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어 한국에 머물게 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미담사례집



영상 편집
공부하는 모습

한국에서 새로운 취미 생활도 생겼는데요,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상 편집은 제가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즐거웠던 순간을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실력을 키워 영상 편집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불가능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이므로 현재에 잘하면 분명 아름다운 미래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민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응원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고향을 떠나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낯선 환경과 문화가 어색하더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친구들과 상의하고, 한국에 있는 이민자를 위한 기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하면 됩니다. 이제 당신은 한국에 왔으니, 여기가 당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밝은 미래가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 사람들과
함께한 식사



외국인 축제에서 함께한 동료들



친구들과 함께 보낸 연말

18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한국에서 다시 피어난 나의 인생



이 름 새친버원락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태국

한국에서 다시 피어난 나의 인생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한국에 산 지 6년 된 새친버원락 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 12월에 제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너무 어렵고 두려웠습니다. '태국의 삶을 다 버려야 하나?' '한국에 가면 어떻게 살까?' 등 여러 생각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힘든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2019년 5월에 결혼하면서 한국에 왔습니다. 6년 동안 제 결혼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감사하고 소망스럽습니다.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6년 전, 나는 9개월 동안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법,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고, 행복한 삶이란 단순히 나만 잘 사는 것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9개월 동안 한국에서 지내는 것과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했을 때,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도 부족했고, 특히 한국어 실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고, 문화 차이로 인한 문제도 자주 생겼습니다. 가끔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고 속상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는 늘 따뜻한 친구들, 다정한 이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하고 착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덕분에 나는 점점 적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지만,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서포터즈 위촉 및 표창



교통방송 출연



태국문화이해교육
강사활동

저는 태국에서 방송홍보예술학과를 전공하여 디자인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 대전실버대학 노인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영상 편집과 방송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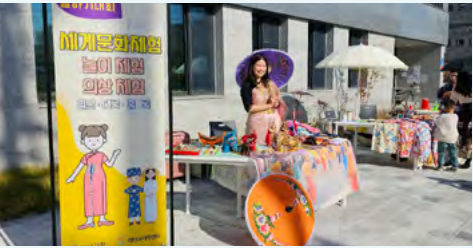
2021년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지금은 직접 차를 운전하여 여러 다문화센터를 찾아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민재단에서 운영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에서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좋은 기회가 생겨 중도일보 어울림 다문화 소식 명예기자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교통방송에 출연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이음' 강사 모집 소식을 알려주며 강사로 활동하면 좋겠다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태국 문화를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서류를 준비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합격하여 다이음 강사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 문화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며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6월, 저는 마침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고향이 아닌 낯선 한국에 사는 것이 처음에 나에게는 높은 뽕처럼 부담스러웠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 따뜻한 마음도 알게 되고, 도전할 수 있는 일도 생겨서 너무 감사하는데 제 인생에 끊임없이 높은 뽕들을 꾸준히 넘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건양사이버대학의 다문화한국어학과 3학년에 편입했고 공부하면서 제 꿈이 생겼습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특히 저와 같은 태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문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어 교원이 되어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미담사례집



가족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다이음 강사 활동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제 꿈은 더 커지고, 그 꿈을 이루겠다는 소망도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꿈을 이루는 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에서의 학습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렵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며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한국에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단순한 외국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하루를 기대와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이 소중한 경험이 제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태국대한민국 대사님과 함께 태국이주민들을 위한 모임



노년 어르신들을 위한 영어교실 교사 봉사



19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봉사를 통한 마음의 힐링



이름 하루나
(Mohammed Haruna Hamza)

국적 나이지리아

● 봉사 through 마음의 힐링



저는 나이지리아 북쪽에서 형제 여덟명 중에 일곱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나이지리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지리아 북쪽에서는 보코 하람이라는 테러단체가 있습니다. 그 테러 집단으로 인해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을 몸소 느끼며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없이 잠에 드는 것이 일상이었고, 총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떨며 잠이 들었다 깨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러집단의 폭격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한순간 살아갈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삼촌, 이모, 가까운 이웃들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희 집이 불타게 되면서 남쪽으로 도망치듯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굉장히 사랑도 많고, 베푸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렇게 착하고 사랑이 많던 저는 어느새 머릿속에 복수와 화로 가득찬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으며 제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직업군인이 되어 우리 이웃들을 죽인 집단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저는 공군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독기를 품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졸업할 때 학교 상들을 거의 혼자서 다 휩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참 이기적이었던 건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매우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부모님께서 이 높은 성적으로 군인 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큰 반대를 하셨습니다. 긴 고민 끝에 저는 결국은 군인 학교를 진학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시간이 필요했던 친구를 따라 연탄나르기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대외활동으로만 생각했던 제가 봉사활동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봉사를 찾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봉사를 했지만 정말 저를 바꿔준 봉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학습지도 및 놀이지도를 하는 봉사활동과 대전 이민자 네트워크 멤버님들과 함께한 김장나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봉사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 가서 저를 본 아이들이 낯을 가렸지만 금세 아이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피부 왜 이렇게 까매요?”, “머리카락이 스펀지 같아요”, “초콜릿 같아요” 이런 질문들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고 저 또한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에 이끌린 저는 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시험기간에도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센터에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을 때는 제 수업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러 가기도 했습니다. 옛날의 저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행동이었죠. 저는 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뺏기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아이들로 인해서 다시 사랑이 많고 순수했던, 어린 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성적이 점점 오르는 것을 보니 마치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출입국 현장 투어 참여하면서 대전 이민자 네트워크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때 이민자 네트워크의 많은 활동 기록들이 벽에 붙어 있어서 하나 하나씩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민자 네트워크에 가입한 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절하고 지적인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나눔 봉사 참여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고,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난 후 더욱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담사례집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혼자 가지는 것보다 누군가와 나누었을 때 그 행복이 더 커진다는 사실어요. 이렇게 어린시절 암울했던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했던 이기적인 제가 한국에서 봉사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민자 네트워크
김장나눔 봉사



사회문제 해결 봉사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한국은 나의 꿈을 꽃 피어준 ‘또 하나의 고향’



이 름 김금화
(JIN JINHUA)

국 적 중국

한국은 나의 꿈을 꽃 피어준 ‘또 하나의 고향’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JIN JINHUA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빠의 권유로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전남대학교에 유학을 오게 되었고, 한국에 온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도 못하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 하면서 한국 친구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조금씩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TOPIK(한국어능력시험) 5급을 취득하였고, 장학금을 받고 학교 교무실에서 간단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TA(교육조교)에 선발되는 등 한국 유학 생활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졸업 후 선생님들의 소개로 타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정든 여수를 떠나기 싫어서 모두 거절했습니다. 여수는 날씨가 따뜻하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이곳에서의 모든 생활이 제게는 너무나 만족스러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수는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중국어학원, 중학교 방과 후 교실, 개인과외, 여수산업공단에서 몇 년 동안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보니 중국어 실력이 부쩍 향상되는 제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 소개로 회사 대상으로 통번역 활동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추억은 제 남편과의 만남입니다. 친구모임에서 처음 남편을 만났습니다. 취미도 같고 서로 마음이 잘 통하여 호감이 생겼고, 몇 년 후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을 뵈었는데 두 분 모두 너무 자상하셔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긴 연애 끝에 2017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빵 나눔 봉사활동



컴퓨터 자격증 취득
장학금 수여

그리고 2018년에 예쁜 딸을 낳아 2년 동안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육아 생활은 힘들지만 예쁜 딸을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무렵 친구 소개로 여수시가족플러스센터라는 기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들을 만나 자녀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요리도 같이 만들며 서로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힘든 육아 생활에서도 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컴퓨터 관련 자격증(ITQ한글& ITQ엑셀), 바리스타 2급, 정리수납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제가 좋아하는 프리댄스도 배워 친구들과 함께 공연도 하고 상금도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생활을 하며 받은 많은 도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요리, 제과제빵을 배워 맛있는 음식과 빵을 만들어 나눔 활동에도 참가 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물질과 능력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헤어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아는 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언니 소개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통역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통역과 간단한 서류 작성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그분들에게 제가 가진 능력으로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통역자격증을 취득하여 제 능력을 키우고 더 많은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다문화 가정으로 한국에 살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염려와는 달리, 시대의 변함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많아져 다문화 여성으로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다문화 2세대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를 포함한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멋지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꿈을 하나씩 이루며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댄스스포츠 수상

21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내가 만난 결혼이민자-아름답고 강하게 “희망 인간, 유미 씨!”



이름 **장유미**

국적 대한민국

원국적 베트남

내가 만난 결혼이민자 -아름답고 강하게 “희망 인간, 유미 씨!”



남양주시 시장상 표창
(2024.12)

✧ 아름답고 강하게 “희망 인간, 유미 씨!”

나는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내가 만난 결혼이민자 중에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분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그녀는 장유미 씨이다. 유미 씨를 만난 지도 십여 년이 넘었다. 유미 씨는 20년 전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결혼이민자다.

유미 씨를 올겨울 만난 것은 한국어 강사 동료들과 막 겨울 산에서 1박을 하고 온 직후였다. 그녀는 한국 주부보다 더 한국적이랄까? 나는 그녀와 자주 만나던 카페로 향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유미 씨 눈가가 축축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안타깝게도 베트남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난 놀란 마음에 조심스럽게 위로했지만 그 깊은 슬픔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처음 유미 씨와 인연이 된 것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교실이다. 한국어 언어교육은 삶을 다시 이어지게 하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치열한 삶의 중심에서 만난 것이리라.

✧ 살면서 겪은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었나

그녀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고부갈등, 아이 양육 문제, 언어 문제 등 수많은 어려움이 산처럼 다가올 때가 항상 있었다고 했다. 걱정거리 하나가 사라지면 또 하나의 산봉우리가 나타났고, 또 넘어가면 더 큰 봉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때마다 ‘살아야지!’ 다짐하며 아이들을 늘 생각하고 이겨냈다고 한다. 초등학생이었던 큰딸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는 고3이었다. 여느 엄마처럼 그녀도 수험생 엄마가 되어 속앓이를 앓고 있다고 너스레를 풀어 놓았다.



김장 나눔 봉사

✧ 어릴적 꿈은 무엇이었나?

그녀는 웃으며 의사였다고 했다. 그리고 한때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책이 수면제라나? 우리는 크게 웃고 말았다. 나는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녀의 새로운 꿈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강하고 아름다운 희망 인간이기에.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주민에게 조언한다면?

‘언제나 길은 있다. 길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녀는 강하게 말했다. 자신도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길을 찾았다고 했다. 그녀는 다시금 곳곳하게 의자에 앉으며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언제나 또 다른 길은 있다고 말하는 그녀의 눈망울이 빛났다.

✧ 무엇을 하면 행복한가요?

“봉사예요.” 그녀는 주저함 없이 밝게 말했다. 음식 조리 봉사, 독거노인 돌봄 봉사, 한부모가정 돌봄, YWCA 봉사, RCY 봉사,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등 여러 봉사를 했지만, 무엇보다 사랑을 담아 음식을 조리하고 그 음식을 배달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딩동” 소리가 너무 가슴 설렌다고 한다. 문을 열어주며 맞아주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모습과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또는 아무 말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한다. ‘기다리는구나’, ‘참,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햇살처럼 마음 깊숙이 퍼진다고 한다. 그녀의 당찬 얼굴이 카페 불빛과 어우러져 참으로 아름답다고 나는 생각했다.



가족사진

✧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남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또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강하고 아름다운 그녀에게
지금 가장 눈물이 나게 하는 단어는 ‘아빠’였다. 나는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는 유미 씨에게 이제 아빠를 보낸 그 슬픔에
“힘내세요!, 사랑해요!”라고 외쳐본다.

유미 씨는 내일 출근이 오전 6시라고 했다. 또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그녀를 생각하며 밤새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우리는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추운 겨울밤의 바람이 얼마나 상쾌하고 부드러운지 마치
봄바람 같았다. 그리고 내가 한국어 강사인 것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낯선 나라에서 온 그녀가 민들레 홀씨처럼 사랑을 나른다.
언제나 아름답고 강하게, “희망 인간, 유미 씨!”



베트남공동체 자조모임(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따스하게 안아준 나라, 한국



이 름 BATKHUYAG
ENKHTUUL

국 적 몽골

따스하게 안아준 나라, 한국

2008년 가을, 저는 가슴 속 작은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한국에 유학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고, 저는 그 기대를 안고 낯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익숙했던 세상을 뒤로하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친오빠가 있어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상명대 석사 졸업(2014)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는 낯선 단어들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업에서는 교수님의 말씀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길을 묻는 것도, 카페에서 음료 하나를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단어씩 익히며 제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인 노력들이 모여, 어느 순간 한국어가 친숙해지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명대 어학당 재학(2009)

상명대 어학원을 거쳐 국민대학교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몽골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만큼, 저는 반드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회과학 정책학을 전공하며 배운 지식들은 저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떠난 몽골 봉사활동은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몽골의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 투호를 하며 깔깔 웃던 순간, 한국 전통 탈을 색칠하며 작은 손을 맞잡았던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가슴 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쁘게 보낸 4년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주는



국민대 학사졸업(2014)

의미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졸업 후, 더 깊이 있는 배움을 쌓고 싶어 한성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고, 인사조직관리를 전공하면서 학문과 현실의 균형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으며, 저의 한국 생활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밤늦게까지 논문을 쓰고 공부하는 시간은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삶이 언제나 기대처럼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수많은 문을 두드렸지만, 쉽지 않은 현실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박사 과정에 진학하며 다시 한번 도전을 선택했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통해 서정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현재 그린식품학을 전공하며 또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도 받을 수 있었고, 교수님들의 따뜻한 지도 아래 이론과 실습을 모두 마치며 자격시험에도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마침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는 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었습니다.



서정대 요양보호사교육
현장실습(2024)

17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젊음을 바친 곳이자, 저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며, 저의 삶이 깊어진 공간입니다. 한국에서의 날들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저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었습니다. 처음 이 땅에 왔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이제는 익숙함과 감사로 바뀌었고, 제 마음은 언제나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침내 서정대학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처음으로 공식적인 직업을 갖게 된 지금, 저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서정대 요양보호사
교육생 캠프 (2024)

한국은 제게 배움과 성장을 선물해 주었고, 저는 이곳에서
저만의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의 새로운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 덕분에 저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정대 요양보호사 합격 축하 (2025)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한국에서 피어나는 꿈: 안눈 씨와 안나 씨의 이야기



이름 **안 눈**
(NY NEANG NOUN)

국 적 캄보디아



이름 **안 나**
(CHEM SINA)

국 적 캄보디아

한국에서 피어나는 꿈: 안눈 씨와 안나 씨의 이야기



안눈과 안나 사진

안눈 씨와 안나 씨는 캄보디아에서 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파주의 한 서비스업체에서 근무하며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마치 자매와 같은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실함은 같은 회사 내 같은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9명의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사장님 역시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성실함과 친밀함에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안나 씨와 안눈 씨는 4년 10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의 우수한 근무 태도는 인정받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기 위해 2017년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고, 5단계 한국사회이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고, 틈틈이 한국의 곳곳을 여행하며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안나 씨는 SNS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틱톡 계정에는 수만 명의 팔로워가 있으며, 한국에서의 일상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눈 씨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과정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안눈 씨와 안나 씨는 매우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여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인 동료들과 많은 교류와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E7-4



안눈과 안나 대학 생활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의 한국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안나 씨가 주말마다 예원예술대학교 귀금속디자인학과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중 근무와 주말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현재는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한국의 주얼리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E9 비숙련근로자들은 체류자격 외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없었지만 23년 정책이 바뀌면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현재 대학 학위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고 대학원 과정까지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처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초기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민자통합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이민자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이민자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상담을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은 고양시, 파주시 거주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이민자통합센터를 찾는 계기가 되었고 다양한 상담사례를 통해 한국사회 정착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안눈 씨와 안나 씨 배우자들이 현재 한국에서 근무 중이고 두 사람 모두 배우자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합니다. 안눈 씨는 배우자가 지방에 머물고 있고 안나 씨는 경기 남부에 머물고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바램은 남편과 자녀 모두 같은 지역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안나 씨는 얼마 전 캄보디아 출신의 남자 친구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뤄 생활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장기비자를 취득하여 생활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E9 비자로 입국 했을때는 최대 10여년 한국에서 생활할 것이라 생각하며 지냈는데 한국의 사회적 현상으로 E9 체류자격 외국인이 장기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주말에는 대학교를 선택해 학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다양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생활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미래를 안겨줄지 지금은 판단할 수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모든 가족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안눈과 안나



안눈과 안나 직장동료들과 사진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한국과 태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자람으로 '태국 전통 춤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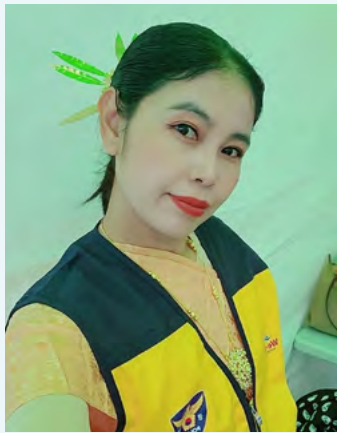


이름 와유리

국적 대한민국

원국적 태국

한국과 태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자란으로 ‘태국 전통 춤 모임’



2023년 8월 14일. 오늘은 설렘에서도 긴장되는 날입니다.

매주 1~2일, 하루 2~3시간씩 연습해왔던 태국의 전통춤을 처음 한국에서 선보이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울산 더 스위트 타이’에서 ‘글로벌 다문화 전통무용 초청 공연’을 선보이게 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 얼마나 긴장했는지 입안이 바짝바짝 타올라 수시로 물을 들이켜봅니다. 리허설 무대 뒤 한켠에서 커튼 사이로 슬쩍 눈만 내밀어 살펴본 본무대 주변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팀원 중 누군가는 너무 긴장하여 청심환도 복용해봅니다. 본무대에 올라 시작 직전, 다 같이 눈을 맞춘 뒤, 예정해 두었던 진형과 포즈를 취합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윽고 무대의 막이 오릅니다. 긴장하고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레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긴장했던 마음을 한껏 풀어놓으려는 차 사회자가 우리에게 ‘초청공연 소감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 한마디를 뱉고 나니 우리의 꿈을 향한 첫발을 떼었다는 실감이 드디어 피부로 느껴집니다.

태국 전통춤 모임의 리더인 저는 2016년 6월 결혼하여 지금의 남편을 따라 태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한국에서 산 지 어느덧 8년 차가 다 되어 갑니다. 입국한 이후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에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국적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도 염원하던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 한켠에는 고국을 향한 향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이 한국에 살면서 고국을 그리워했고, 가끔 알 수 없는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뜻이 잘 맞는 우리는 더 자주 소통하며 만나고 싶었고, 단순히 만남을 이어가기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수여식 공연



국적수여식-태국전통춤

싶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기억이 인상 깊게 남아있던 2022년 우연히 접한 한국의 전통춤(한국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전통 치마인 풀치마를 입고, 삼선 부채를 들고 한국의 전통 노래에 맞춰 부채춤을 배웠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더 깊이 이해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무용을 통해 한국문화와 정서를 경험한 것처럼 태국 전통춤을 통해 태국 문화를 계승하고 태국의 문화와 정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2023년 6월 태국 결혼이민자들이 전하는 ‘태국 전통 춤 모임’은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공연을 진행한 이후, 우리는 공연을 더하고 싶어 여러 기관과 축제 관계기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2023년 10월 우리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야외공연장에서 태국 전통춤을 시연하였고, 울산문화원 배꼽마당에서 ‘국제결혼 가족 합동 전통혼례식’에서 혼례식을 축하하는 춤을 선보였습니다. 또 울산 대왕암 공원에서 ‘현대중공업과 함께하는 세계문화 축제’라는 행사에서도 태국 춤 솜씨를 선보였습니다. 이 축제는 매우 큰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습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별 퍼레이드 행사에서 태국 대표로 참가하는 등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행사였습니다. 2024년에도 글로벌 페스티벌, 울산장미축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외국인 한가위 행사, 고래문화축제, 공업 축제 퍼레이드, 울산 배 축제 등 울산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계속하여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 많은 공연을 뛰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24년 5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세계인의 날 맞이 국적 수여식에서 진행했던 ‘태국 전통 춤 공연’입니다. 이날, 태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제가 8년 동안 성장하여, 갓 한국으로 귀화하게 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태국의 전통춤으로 축하를 전할 수 있어



전통혼례식

정말 뿌듯했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25년 올해, 우리는 태국 대사관과 태국 예술부와 협력하여 매우 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국에서 온 전통 무용단과 함께 우리는 또 서울에서 함께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올해의 공연이 매우 기대됩니다.

태국 전통춤은 춤 자체에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태국 전통춤을 통해 전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연습에 매진할 것이고, 높은 수준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실행하고 꿈을 꾸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 고래 문화 축제 공연



태국문화모임



25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무료 진료와 한국어 수업으로 함께하는
지구촌 문화 향기 폴폴~~



경주YMCA



● 무료 진료와 한국어 수업으로 함께하는 지구촌 문화 향기 폴폴~~

여기, 언어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수산업 · 서비스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주대상)를 주말을 반납하며 불철주야 돕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입니다. 경주YMCA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 위원인신 '이은숙' 센터장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현)사회통합위원회 이영찬 위원장과 김명희 위원과 협력하여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① 임마누엘다민족센터 등의 지역외국인상담실을 운영하여 소규모 이주민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② 체류 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돕고자 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류 외국인 인식개선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③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며 ④ 이들의 정서와 육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적 일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⑤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고려주민 정착 사업을 추진중이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한 한글수업, 외국인토론, 문화 이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외국인 간의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련 여러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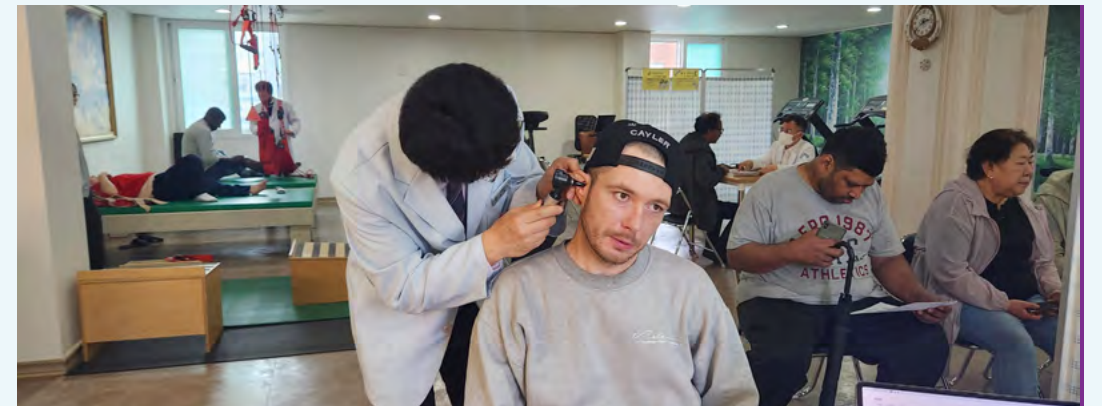
특히 흑시라도 산업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기 위해 무료 진료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해 10여개의 병·의원, 약국, 한의사들과 MOU를 맺고 합심하여 평소 회사일로 인해 진료받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째주 일요일에는 아세아 정형외과에서 걸음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소문이 퍼져 매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경주시에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기에 즐거움도 고통도 함께 나누며 그들이 한국 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관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힘을 모아,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서로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무료 진료



미담사례집

찾아가는 무료 진료



동포체류지원사업-슬기로운한국생활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한글 수업



제25회 지구촌축제한마당



26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



이 름 정 욱 주
(TRAN MIN HIEN)

국 적 베트남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

저는 올해 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민헨이라고 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국어도 전혀 할줄 몰랐고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어부터 공부해야 한다고 하셔서 한국에 오자마자 진주 YWCA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한국어 선생님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드디어 3년 전에 어머니와 한국어 선생님이 기계공업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벌써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적응도 안되고 너무 힘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한 달이라도 학교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년 동안은 일단은 해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 만큼만 해. 너무 말을 잘할 필요도 없고 말을 알아듣는 정도만 해도 돼. 학교에서도 네가 외국인인걸 알고 또 한국어를 잘 모르는 것도 알면서도 너를 학교에서 받아 주셨으니 꾸준히 학교에만 가면 될 것 같애.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 수 있을거야. 이제 일주일 밖에 안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힘내!!”

학교에서는 제가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방과 후 수업시간에 1:1로 가르쳐주시는 한국어 선생님을 구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상장

일주일에 다섯 번,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수업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렀고 열심히 공부해서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 때에는 방과 후 한국어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선생님을 구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에는 학교에서 수업하지는 않고 주말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을 하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학교생활 적응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친구들하고 같이 헬스 클럽에 다녔습니다.

제가 친구들의 헬스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헬스를 좋아하셔서 헬스 대회에 나가려고 준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헬스를 배우셨고 나도 아버지에게 헬스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같이 헬스 클럽에 다니면서 운동하는 방법과 음식에 대한 곳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일별로 어떤 순서로 운동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도 이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알려 주면서 친구들과 매우 친해졌습니다.

자격증 취득도 하였습니다.

3학년부서는 용접을 공부했습니다. 용접을 배운 지 6~7개월 쯤 됐을 때 용접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용접대회에 나가서 상 받은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배운 지 6~7개월 밖에 안되었지만 학교 선생님께서는 제가 용접기술에 소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은 그 기술을 잘 모르셔서 혼자 인터넷을 보고 배우라고 재료를 사 주셨습니다. 입상하고 나자 학교 선생님께서는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접 기술이 있는데 방학 때나 방과 후에 지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드디어 졸업

저의 하루일과는 아침 8시 30분에 학교에 가서 오후에는 실기 연습을 하고 저녁 9시까지 연습을 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일 저녁 8시나 9시까지 실습장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결석이나 지각 조퇴는 단 하루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결석은 비자 연장하러 간 날 뿐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하고도 무척 잘 지냅니다. 나이가 아이들보다 한두살 더 많기도 했고 학교에 외국인이 처음이라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반 말고 다른 반 친구들과하고도 잘 지내고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도 취득했고 국적 시험도 합격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졸업식에서 새로운 외국인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를 보며 좋은 선배님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멋진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친구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졸업식 날 가족과 함께



이제 나도 선배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중국에서 전주로, 그리고 새로운 여정



이름 장 천
국적 중국

중국에서 전주로, 그리고 새로운 여정



1.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출발 및 도전

2010년 9월,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전주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마친 후, 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한국에서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려던 시기였습니다. 어학연수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 당시 저는 더 깊은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편입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어국문학은 저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분야였습니다.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었고, 이 분야에서 저의 길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제가 가진 목표는 항상 명확했습니다. 그저 학문적인 성취를 위해 끝까지 도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힘든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큰 변화

그러나 2020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월에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학업도 중단되었고, 한동안 한국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다시 시작하려 해도, 온라인 수업도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업이 중단된 채로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논문 쓰고 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 돌아가고 싶어서 논문을 쓰고 싶은 마음에 더 다급해졌습니다.



졸업 사진



결혼 사진

한국에 돌아온 후, 박사 논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지만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때 전주출입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다양한 도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한국에서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드디어 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3. 예상치 못한 만남: 결혼 및 새로운 도전

2023년 2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약 1년 후, 제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고, 2024년 10월,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이주여성으로서 전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생 신분을 지나 이제는 결혼을 통해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2분기 으뜸자원봉사상

4. 학문적 목표와 사회적 기여

결혼 후에도 제 학문적 목표는 여전히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언어 강사로서 또는 한국어 강사로서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특히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한국 사회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저는 한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전주출입관리사무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고, 2024년 2분기에는 전주시 으뜸자원봉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도움을 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 자신도 많이 성장했으며, 한국 사회에서 나누고 싶은 가치와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5. 꿈을 향한 여정

지금,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외국 출신으로서 제가 겪은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중언어 강사로서,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계속하며, 제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제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와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항상 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주민들에게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통해 제 경험을 나누며, 두 나라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제 꿈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체류외국인 간담회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전주출입국 “다공학급 도서 지원”



전주출입국 이민자 네트워크, 사회통합협의회

전주출입국 “다꿈학급 도서 지원”



도서수여식
-사회통합전주협의회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소 이민자 네트워크에서는 회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유리공예 체험, 결혼이민자 가족들과의 베이킹 클래스, 유학생들과의 볼링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통합전주협의회에서는 모범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외국인 환우 치료비 지원 및 병원 연계 등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이민자 네트워크의 여러 행사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우리 소 이민자 네트워크와 사회통합 전주협의회가 함께한 활동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우리 소 이민자 네트워크와 사회통합 전주협의회는 전주금평초등학교 다꿈학급 학생들에게 도서 100권을 기증하고 일일 강의를 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주금평초등학교는 현재 전교생 217명 중 다문화 학생이 66명이고, 이 중 다꿈학급은 25명입니다. 다꿈학급은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한국어 학급입니다.

전주금평초등학교 다꿈학급에는 몽골, 베트남, 중국, 우즈벡,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서툰 다꿈학급 학생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통합 전주협의회에서는 한국어 전래동화 전집 74권과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외국도서 26권, 총 100권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일일강의
-이민자 네트워크

특히 이날 행사에는 우리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3명(장첸, 후옌, 너밍)이 일일 강사로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각 나라(중국, 베트남, 몽골)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간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 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한국에 먼저 모범적으로 정착한 선배로서의 여러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잘 성장한 선배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상담 및 조언하는 꿈나무 멘토링도 계획 중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9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나를 반하게 만든 한국,
사랑해요~!



이 름 김 율리야

국 적 우즈베키스탄



● 나를 반하게 만든 한국,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엄마’입니다.

저는 고려인이고, 한국은 제 역사적 고향입니다. 구소련의 고려인들은 고향도, 문화도, 언어도 없는 민족일 뿐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는 러시아 빵을 먹고, 점심에는 한국 음식을 먹고, 저녁에는 우즈베키스탄 리뽀스까를 먹으며 러시아어로 말하는 생활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생계유지와 자녀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떠나야 한다고 결정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유럽, 미국, 캐나다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뿌리는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으로 고향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름다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에, 저와 제 어린 딸은 서툰 한국말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때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1년 정도 지나니 훨씬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였습니다. 이러한 배려와 예의는 다른 민족과 한국인을 구별하는 가장 귀중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닮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한국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고, 같은 방식으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때때로



경복궁 문화탐방
- 한복체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많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의 열심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인들은 나에게 매우 잘 대해주고, 외국인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삶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며, 항상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에서 공장을 다니며,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양한 직업을 연구하며 동시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순간 평생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렇다면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청주시 글로벌 청소년단]
러시아어 통역보조 활동

지금은 ‘청주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러시아어를 통·번역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문화 체험, 축제를 운영합니다. 매우 즐겁고 신나는 직업이며, 무엇보다 한국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도울 수 있어 저에게는 의미가 큼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 도우미 교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한국어에 서툰 고려인 동포들과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낯선 언어와 문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제 경험을 소개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제 딸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제 딸은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고, 한국 여행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청남대 방문 기념

한국의 편안함이 정말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의 나의 삶은 밝아지고 생동감이 넘치는 색깔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청주라는 한국 도시는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고향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 새로운 인상, 새로운 경험과 지혜가 찾아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나를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고 적응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딸이 대학 교육을 받고, 좋아하는 직업을 갖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다 보면, 삶은 흐르고 매일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깨어날 수 있는 꿈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아주 반해버렸습니다!



자녀와의 여행

30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한국은 저의 두번째 고향입니다.



이 름 김 태 연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베트남

한국은 저의 두번째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지 벌써 12년이 넘었어요.

베트남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성실하고 든직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2013년 4월,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걱정과 두려움이 컸지만, 든든한 신랑을 믿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처음 만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주셨어요. 그 모습에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2013년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쌓아갔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제 한국어 공부를 도와줬고, 덕분에 2015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게 되었어요.

점점 한국어가 잘 들리고 말할 수 있게 되자,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한국 생활이 더 편해졌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방법과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셨고, 덕분에 저는 한국 주부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얻어서 운전면허에도 도전했고, 한번에 면허를 땀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저는 2016년 귀여운 아들 쌍둥이를 낳았고, 곧이어 예쁜 막내딸도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취미로 아이들 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의상 디자인이 꿈이었어요.

그렇게 취미로 하던 옷만들기를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의상디자인학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정말 열심히 배웠고, 실력도 점점 늘어서 원장님의 추천으로 의상 디자인 기능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원장님의 가르침으로 2022년에는 충북 기능사 대회에서 금메달을 땀어요.

비록 전국대회에서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의상 디자인 학원에서

저에게는 뜻깊은 도전이었고 옷 만드는 일은 지금까지도 저의 큰 즐거움이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 의상실을 작게나마 열어보았지만, 생각보다 운영이 어려워져서 결국 문을 닫고 치킨 가게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가게를 인수할 기회가 생겨 지금은 치킨집 사장님이 되었어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틈나는 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받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을 봉사 활동을 통해 되돌려주고 싶어요.

청주출입국 민원실
봉사자들과 함께

제가 배운 의상 디자인 기술로 2022년부터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배운 재봉 기술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해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청주출입국 민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민원인들을 보면 처음 한국에 왔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더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삼남매의 엄마로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요. 특히 우리 삼남매는 저의 기쁨이에요.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The 18th Together Day

제18회 세계인의 날

이당사레집